

청년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지은* · 정세은**

불평등은 한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제도적인 문제이다.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세대간 대물림이다. 부유한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자산의 이전은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모에서 자녀로의 소득의 이전은 현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기 위한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모의 경제상태가 청년가구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청년 가구(7,622가구)의 약 40%만이 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였다. 일상적인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2,389가구)는 평균 284만원의 사적이전소득이 있었고, 일회성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287가구)는 평균 3,799만원의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적이전소득유무와 성격에 따라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가구의 소득정도에 따라 자녀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가구의 총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높고, 이와 함께 소비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유한 부모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는데, 이에 더해 사적이전소득도 높아,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높은 소비수준을 통해 더 윤택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분들을 통제했을 때 기초분석에서 보여진 부의 세대간 대물림이 소비까지 연결되는 것이 증명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의 대물림은 자녀의 교육을 통해, 직업을 통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일상적인 사적이전소득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청년세대의 양극화 현상을 악화시키며,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청년수당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적이전소득의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용어 : 사적이전소득, 소비, 세대간 이동성, 청년, 고정효과모형, KLIPS,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lee332@kli.re.kr),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로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seeun@cnu.ac.kr)

I. 서론

불평등은 한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제도적 문제이다. 불평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원인으로는 세대간 대물림을 꼽는다. 상속이나 증여는 주로 큰 덩어리의 자산을 자녀에게 제공하여,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 없이도, 미래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는 성장과정에서 이미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홍민기, 2017; 이지은, 2018). 이에 더해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은 부의 대물림을 더욱 견고하게 된다. 이철승·정준호(2018)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소득 혹은 ‘소득 창출 능력’의 세대간 이전에 비해 보다 노골적인 경제적 부의 재생산 과정이며,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의 세대 간 이전의 불완전성 및 비결정성을 보완하는 기제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해 세대간 부의 이전 효과를 약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사적이전소득은 자산의 이전이라는 큰 덩어리와 달리 규모가 작아, 부의 대물림을 얘기할 때 주목받지 않았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은 쌍방향으로 발생하여, 자녀에서 부모에게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제공되는 현금 및 현물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켜, 오히려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일상적인 더 많은 소득을 이전시킴으로써, 청년세대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득 격차는 그 자체로서의 문제보다, 소비를 통해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에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덜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차이가 실제로 보여지는 소비의 차이로 이어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심리적인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부모 자녀간의 사적이전소득은 미래에 자녀의 소득을 높이는데 투자되는 것 뿐 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 소비를 촉진시켜, 보다 윤택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서 자녀에게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이 현재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고찰

사적이전소득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으로 소득이전방향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적이전소득 관련 연구는 자녀에서 부모에게 이전되는 소득에 대한 연구로, 노인 복지 관점에 맞추어져 있다. 손병돈(1998)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구성한 결과, 가족 간 소득이전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특히 최하위계층과 중하위계층의 경우 소득의 50%이상이 사적 이전소득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부모로의 소득 이전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로는 KLIPS를 이용한 김지경·송현주(2008)의 연구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 이전하는 소득금액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금액보다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서 자녀로 소득이 이전되는 요인으로는 자녀가 아들일 경우와 자녀의 자녀가 있을 경우로 분석되었다.

사적이전소득과 불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아림·마강래(2015)는 KLIP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소득세와 사적이전소득은 광역시도간의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권역내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Kim and Choi(2001)은 사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자식간의 강한 유대가 자녀의 분가이후에 지속되는 동양적 가족문화와 서양에 비해 미흡한 복지정책이 영향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사적이전소득에 국한된 연구는 아니지만,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도시가계 연보를 활용한 소연경(2000)에 의하면, IMF 전후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영민(2016)은 2001년 전 후 기간에는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소비를 최대 0.27%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였고,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된 2009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1% 인상이 가구소비를 최대 1.2%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소득불평등과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조성원(2007)은 국민계정상의 거시총량지표와 통계청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민계정과 코스피지수, 통계청 가계조사를 이용한 배성종·이상호(2006) 역시 소득불평등지수가 총소비성향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외, 소득원천별로 가구 소비성향이 다름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가구를 분석한 결과,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순으로 한계소비성향이 크게 나타났다(서영민·송헌재, 2015) 이는 소득원천별로 한계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연구로,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고자산가 집단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자산이전이 소비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을 경우 소비보다는 부채상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상적인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 것으로, 자산 이전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질문

기존 연구 고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적이전소득에 관한 연구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자녀에서 부

모로 이전된 소득이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는 국가적 관점에서 거시 지표들을 사용하여, 이전소득이 전 국민적 차원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 소비와 관련된 연구는 소득계층별 혹은 소득격차가 소비 지출구조나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세대이동성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적이전소득에 초점을 맞출 것이므로, 부모에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소득만을 다룰 것이다. 유산이나 증여와 달리, 일상적인 현금거래가 주가 되는 사적이전소득은 현재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미래의 소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사적이전소득이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질문 2. 부모의 경제 상태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질문 2를 분석하는데 있어, 다음의 질문으로 변환하였다.

질문 2-1. 부모 가구의 총소득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을 때, 개별 집단에 서 사적이전소득이 청년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질문 2-2. 부모 가구의 총자산을 고자산층, 중자산층, 저자산층으로 구분하였을 때, 개별 집단에 서 사적이전소득이 청년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III.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는 것으로, 한국노동패널자료(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라 함)를 사용하였다. KLIPS는 1998년 도시거주 5,000가구와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는 패널조사이다. 2009년 표본 추가로 전국단위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 학술대회 버전 조사자료에 의하면, 7,090가구, 14,445명이 조사되었다.

KLIPS는 가구패널 조사로 기본적으로 가구를 추적조사한다. 1998년 최초 조사 당시에 조사했던 원가구를 추적하면서, 원가구에 속해있던 원가구원이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분가를 할 경우, 새로운 분가가구가 생성되며, 그 분가가구도 추적하여 조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부모로

부터의 사적 이전소득과 소비의 관계, 부모의 경제상태가 분가한 청년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에 KLIPS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부모 가구와 분가한 자녀 가구의 가구정보와 부모와 자녀의 개인 정보가 모두 파악되기 때문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함께 분석 할 수 있다.

KLIPS에서 부모가구와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한 자녀가구를 결합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KLIPS는 2차년도부터 21차년도까지 20년 동안 매해 약 100가구정도가 평균적으로 분가하고 있어, 2018년도 현재 총 2,669분가가구가 있다. 이들 분가가구에는 부모로 부터의 분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나 친인척과 함께 살다가 분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부모로부터의 분가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부모 자녀사이에서 발생한 부모-자녀 가구쌍을 선택하였다. 가구쌍은 분석대상인 자녀가구의 가구주 나이가 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가구를 기본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이전되는 소득은 KLIPS 9차(2006년 조사)에서부터 측정하고 있어, 2006년도 자료부터 2018년도 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에 의하면, 13년 동안 전체 응답가구 83,754가구 중 분가가구는 25,652가구로 약 30%이다. 이중 부모로부터 분가한 자녀 가구는 18,649가구, 이중 가구주의 나이가 20~34세인 가구는 7,622가구로, 이를 분석표본으로 한정하였다. 분석표본은 개별가구의 응답횟수가 서로 다른 불균형 패널로 구성되었다. 총 응답 가구는 1,967가구이며, 이들의 응답 횟수는 1회 385가구, 2회 342가구, 3회 291가구이며, 총 12회를 응답한 가구는 4가구이다. 한 가구당 평균 응답횟수는 평균 3.9회이다.

<표 1> 년도별 분가가구 분포 및 분석표본 사례수

	전체 응답가구	전체 분가가구	부모로부터 분가한 자녀가구	가구주 연령 20~34세 (분석표본)	분석표본의 응답 횟수	가구수
2006	5,001	1,181	830	575	1	385
2007	5,069	1,294	909	575	2	342
2008	5,116	1,406	995	581	3	291
2009	6,721	1,648	1,167	632	4	265
2010	6,683	1,802	1,294	674	5	195
2011	6,686	1,924	1,402	668	6	155
2012	6,753	2,018	1,478	656	7	133
2013	6,785	2,110	1,551	628	8	93
2014	6,838	2,208	1,617	585	9	61
2015	6,934	2,345	1,726	549	10	30
2016	7,012	2,469	1,812	525	11	13
2017	7,066	2,578	1,902	498	12	4
2018	7,090	2,669	1,966	476	평균	3.9회
합계	83,754	25,652	18,649	7,622	응답 가구	1,96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9~21차(2006~2018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본 연구는 부모에서 자녀에게 이전되는 사적이전소득이 청년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관측되지 않는 시간 불변요인 뿐만 아니라, 가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간추세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모형식은 다음과 같다.

$$\ln C_{it} = \alpha + \beta \ln P_{it} + \gamma X_{it} + t_t + u_i + \epsilon_{it} \quad \text{-----} \quad (1)\text{식}$$

- i 는 개체표본이고, t 는 연도를 나타내는 첨자
- $\ln C_{it}$ 는 종속변수로 청년가구의 소비액 로그변수
- $\ln P_{it}$ 는 부모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액 로그변수
- X_{it} 는 설명변수
 - 청년가구 특성인 가구 총소득액(사적이전소득 제외) 로그변수, 총자산 로그변수, 거주지역 가변수, 입주형태 가변수
 - 청년 개인 특성인 연령, 고용형태 가변수
 - 부모 가구의 특성은 가구 총소득액 로그변수, 총자산 로그변수
- t_t 는 t 연도에서는 1의 값을, 그 밖에 다른 연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연도별 가변수
- u_i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i 가구의 고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
- ϵ_{it} 는 시간과 i 가구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표 2>와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는 일상적인 생활비의 개념으로 본 설문에서 비내구재(식비, 외식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문화비, 통신비, 용돈, 피복비, 대중교통비, 생필품구입비, 기타)만으로 구성되었다. 비소비지출(경조사비, 현금 및 기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과 내구재,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사적이전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한 질문이다. 일반적인 증여, 상속을 제외한 경제적 교류를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된 이유, 경제적 도움 정도 현금 액수, 현물의 경우 당시 가격으로 환산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구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여 한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의 이전소득 모두를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① 생활비가 부족해서, ② 사업자금, ③ 주택구입, ④ 경조사(혼인, 생일 등), ⑤ 부채 상환, ⑥ 의료비, ⑦ 내구재 구입, ⑧ 자녀양육비, ⑨ 별다른 이유 없음, ⑩ 기타로 응답된다. 위의 보기들을 살펴보면, 항상 소득의 개념으로 지급된 경우와 이벤트의 성격을 가진 일회성으로 지급된 경우가 혼재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전소득이 없는 경우, 일상적인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①,

⑥,⑧,⑨), 일회성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②,③,⑤,⑦)를 구분하였다¹⁾.

<표 2> 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세분류	변수	설명
종속		소비 ¹⁾²⁾	작년 한해 동안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생활비에서 비소비지출(경조사비, 현금 및 기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내구재를 차감한 금액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금 미포함
	독립	자녀 가구	가구 총소득 ¹⁾²⁾
사적이전소득 ¹⁾²⁾			작년 한해 동안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 현물은 당시 가격으로 환산하여 포함
사적이전소득 유형 ³⁾			0: 없는 집단 1: 일상적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 2: 일회성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 ※사업자금, 주택구입, 부채상환, 내구재구입, 혼인 등의 이유로 거액의 금액이 일시적으로 제공된 집단
총자산 ¹⁾²⁾			부동산 관련 자산(현재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 부동산 시가, 전세 임대 보증금)과 금융자산의 합
거주지역			0: 비수도권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개인 특성		입주형태	0: 자가 1: 전세 2: 월세 3: 기타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20~34세)
		고용형태	0: 미취업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부모 가구		총소득 ¹⁾²⁾	작년 한해 가구 총소득
		총자산 ¹⁾²⁾	부동산 관련 자산(현재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 부동산 시가, 전세 임대 보증금)과 금융자산의 합

주: 1) 분석모형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하고, 자녀가구는 자녀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부모가구는 부모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한 다음 자연로그 취하여 사용함

2) 작년 한해 동안의 소비, 소득을 조사 한 것으로, 실질화시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함

3) 모형분석에서는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서, 독립변수에서 제외됨

1) 이 중에서 ④ 경조사(혼인, 생일 등)의 값은 분가년도에 혼인을 한 경우는 일회성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는 일상적 이전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산(현재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 부동산 시가, 전세 임대 보증금)과 금융자산을 모두 더하여 구하였다. 자산변수 구성을 순자산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순자산은 소득 분위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반드시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산층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부채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홍민기, 2017). 거주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이다.

부모가구의 특성으로는 작년 한해 가구 총소득, 현재 총 자산이다.

금액은 모두 실질화하였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녀가구특성은 자녀 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부모 가구의 특성은 부모 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고, 자연 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TATA 16.0을 사용하였다.

2. 기초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청년 가구의 소비(월평균 생활비)는 153만원이고, 연간 가구총소득 평균 3,764만원, 현재 자산액은 1억 1,685만원이다.

연간 사적이전소득은 239만원(7,622가구)이다. 이중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2,589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사적이전소득은 284만원으로, 부모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차이가 있다. 사업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의 이유로 제공된 일회성 사적이전소득액은 평균 3,799만원(287가구)이다. 전체 청년 가구 중(7,622가구) 중 약 62%(4,746가구)가 사적이전소득이 없고,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2,876가구=2,589가구+287가구) 중 약 10%(287가구)는 10배 이상의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이는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있는 집단 안에서도 일상적인 사적이전이 있는 집단과 일회성의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의 성격이 매우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 유형에 따른 분석은 <표 4>에서 다시 다루겠다.

공적 이전소득은 평균 34만원(7,622가구)이고,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평균 액수는 338만원(774가구)이다.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약 10%이다.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규모와 액수의 규모를 모두 고려했을 때, 청년가구의 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보다,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평균 4,448만원이고, 부모가구의 자산은 평균 3억 1,357만원이었다.

<표 4>는 사적이전소득의 유무 및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집단간의 차이를 순수하게 보여주기 위해, 연간 가구소득은 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연간 가구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3,316만원,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3,727만원, 일회성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4,239만원으로 집단간 차이가 크다. 사적이전소득금액은 일상적 이전소득 집단은 284만원, 일회성은 3,799만원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회성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집단은 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가장 높는데, 사적이전소득도 월등히 높아 더 높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표 3> 분석 표본의 특성

(단위: 가구, 만원)

	사례수	중위값	평균	표준편차	
	7,622	150	153	82	
	7,622	3,264	3,764	2,935	
	7,622	0	239	1,428	
자녀 가구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액	2,589	103	284	985
	일회성 ¹⁾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사적이전소득액	287	1,446	3,799	5,647
	연간 공적이전소득	7,622	0	34	132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액	774	267	338	265
	7,622	7,231	11,685	16,411	
부모 가구	7,602	3,531	4,448	3,987	
	7,602	18,089	31,357	44,204	

주: 1) 가구 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2) 사업자금, 주택구입, 부채상환, 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전 소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9~21차(2006~2018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이들 집단의 평균 연간 공적이전소득액을 비교해보면, 일상적 이전소득 집단은 60만원으로 가장 높고,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21만원, 일회성 이전소득집단은 25만원으로 유사하다.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으로 분석하면, 각각 325만원, 348만원, 289만원으로 차이가 줄어들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청년가구는 모든 집단에서 약 90%가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월평균 생활비는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는 142만원으로 낮고, 일상적, 일회성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은 각각 171만원, 170만원으로 유사하다.

현재 자산정도, 부모가구의 연간 총소득 및 자산 등 세 개 항목 모두 일회성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집단 순으로 높았다.

사적이전소득 유무와 성격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집단이 소득도 가장 낮고, 현재 자산도 가장 낮고, 부모 가구의 총소득과 자산도 모두 가장 낮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더해 사적 이전소득도 없기 때문에 사적이전소득을 더했을 경우, 다른 집단과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일회성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은 표본수는 적는데 반해, 사적이전소득의 액수는 편중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모로부터의 사적이

2) 그러나 이는 설문문항에서 최근 제정된 지자체 청년수당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생각된다. 설문이 개편되면, 청년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전소득이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가, 혹은 부모의 경제상태가 자녀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을 제외하고,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에 한해 모형을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4> 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성격에 따른 소득, 소비, 자산 및 부모의 경제상태

(단위: 가구, 만원)

	사적이전소득 없는 가구 (N=4,746)	일상적 사적이전소득 (N=2,589)	일회성 사적이전소득 (N=287)	F값
연간 가구소득 ¹⁾	3,316	3,727	4,239	37.21***
연간 사적이전소득	-	284	3,799	1281.92***
연간 공적이전소득	21	60	25	78.17***
공적이전소득 있는 가구	325 (N=300)	348 (N=449)	289 (N=25)	1.10
소비(월평균생활비)	142	171	170	108.98***
현재 자산	10,941	12,621	15,553	17.13***
부모가구 연간 총소득소득	4,376	4,458	5,559	11.96***
부모가구 자산	29,360	34,329	37,538	13.52***

주: 1) 본 표에서 사용한 가구소득은 총가구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한 값임.

2) *** p<0.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9~21차(2006~2018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표 5>는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2,589가구)의 특성별 총소득, 사적이전소득, 생활비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가구 전체 평균 가구 총소득은 3,787만원이고,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은 284만원, 월평균 소비는 171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0대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높아, 부모로부터의 의존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비는 30대가 더 높다.

취업형태로는 미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높았고, 소비는 가장 낮았다.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총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비수준이 모두 높아, 월세가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소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총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높지만, 소비는 오히려 적다. 이는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가구의 소득정도에 따라 자녀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가구의 총소득도 높고, 사적이전소득도 높고, 소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가구의 자산으로 구분한 집단에서도 자산이 많은 집단일수록, 자녀 가구 소득, 사적이전소득, 소비수준도 높다.

표본 특성별 기술적 수치를 비교할 때,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이미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더해, 부유한 부모는 자녀에게 일상적인 더 많은 소득을 이전

시킴으로써, 청년세대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구는 이를 소비에 사용하여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현상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인지에 대해 정교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표 5>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의 특성

(단위: 만원, 가구)

			청년가구의소득,소비			
			소득 ¹⁾	사적이전소득	월평균생활비	사례수
전체			3,787	284	171	2,589
자녀 가구	연령	20대	2,567	292	130	729
		30대	4,265	281	187	1,860
	취업형태	미취업	2,308	452	132	290
		임금근로자	3,816	231	170	1,922
		비임금근로자	4,682	269	210	234
	입주형태	자가	4,739	346	208	816
		전세	3,953	270	168	964
		월세	2,607	218	143	510
	거주지역	비수도권	3,771	241	171	1,631
		수도권	3,814	356	170	958
부모 가구	소득구분	저소득(1~3분위)	3,436	209	163	791
		중소득(4~8분위)	3,883	257	171	1,298
		고소득(9~10분위)	4,123	467	182	495
	자산구분	저자산(1~3분위)	3,267	215	160	672
		중자산(4~8분위)	3,863	284	170	1,327
		고자산(9~10분위)	4,234	355	184	585

주: 1) 소득은 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2) 소득, 사적이전소득, 월평균 생활비는 소비자 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9~21차(2006~2018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IV. 연구 결과

1. 분석가구 전체의 추정 결과

본 연구는 부모에서 자녀에게 이전되는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패널자료의 특성에 따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5>는 추정결과로, 모형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적이전소득이 1%증가할 때, 소비가 0.00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정도도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소득이 1%증가할 때, 소비는 0.04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입주형태가 자가보다는 월세일 때, 미취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가, 미취업자 보다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비가 각각 7.85%, 10.48%, 17.0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구의 총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자산은 소비에 음의 영향(-0.017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분석표에서와 부모의 자산이 높은 집단이 소비가 높았던 분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부모의 자산이 1% 증가할 때, 소비는 0.0172%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구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자녀	사적이전소득 ¹⁾	0.0084	(0.0078)	
	소득 ¹⁾	0.0485	(0.0075)	***
	자산 ¹⁾	0.0017	(0.0055)	
	수도권(기준:비수도권)	0.1014	(0.0634)	
	입주형태(기준: 자가)			
	전세	0.0118	(0.0269)	
	월세	0.0785	(0.0339)	**
	기타	-0.0075	(0.0405)	
	연령	0.0046	(0.0295)	
	고용형태(기준:미취업)			
임금근로자	0.1048	(0.0315)	***	
비임금근로자	0.1705	(0.0466)	***	
부모	부모 소득 ¹⁾	0.0176	(0.0114)	
특성	부모 자산 ¹⁾	-0.0172	(0.0076)	**
가구수=859 / 표본수=2,016 / overall R ² =0.0909 / F=7.90***				

주: 1) 소비자 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하고, 자녀가구는 자녀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부모가구는 부모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한 다음 자연로그 취하여 사용함

2) 분석모형에는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9~21차(2006~2018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2. 부모가구 총소득규모별 추정 결과

부모가구의 총소득을 3개 집단(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7>에 따르면, 부모가구 소득 기

준,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모형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고소득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 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저소득층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1%오르면, 소비가 0.036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중소득, 고소득 집단보다 많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 소득은 부모 가구소득 기준, 저소득, 중소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소득이 1% 증가했을 때, 중소득층은 0.0612%, 저소득층은 0.0380%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주거 여부는 부모가구 중소득 집단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에 비해 월세여부는 저소득 집단, 중소득 집단에서 모두 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의 소비는 저소득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는 저소득, 고소득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부모가구 총소득규모별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구분	변수	부모 저소득	부모 중소득	부모 고소득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분가 자녀	사적이전소득 ¹⁾	0.0363 (0.0190) *	0.0101 (0.0111)	0.0116 (0.0213)
	소득 ¹⁾	0.0380 (0.0158) **	0.0612 (0.0118) ***	0.0083 (0.0226)
	자산 ¹⁾	0.0035 (0.0114)	0.0087 (0.0086)	-0.0390 (0.0215) *
	수도권(기준:비수도권)	0.0292 (0.1224)	0.2730 (0.1048) ***	-0.1837 (0.1748)
	입주형태(기준:자가)			
	전세	0.0864 (0.0729)	0.0150 (0.0359)	-0.0433 (0.0834)
	월세	0.1413 (0.0836) *	0.0847 (0.0513) *	0.1151 (0.1098)
	기타	-0.0746 (0.1008)	0.0377 (0.0611)	-0.0415 (0.1233)
	연령	0.0469 (0.0731)	-0.0091 (0.0472)	0.0647 (0.0885)
	고용형태(기준:미취업)			
	임금근로자	0.1556 (0.0640) **	0.0554 (0.0491)	0.1279 (0.1031)
	비임금근로자	0.2872 (0.0996) ***	0.1538 (0.0661) **	0.1658 (0.2194)
부모 가구	부모가구 소득	0.0148 (0.0232)	0.0216 (0.0427)	0.0381 (0.0613)
	부모가구 자산	-0.0348 (0.0122) ***	0.0151 (0.0173)	-0.0451 (0.0438)
		가구수=339	가구수=543	가구수=199
		표본수=630	표본수=1,026	표본수=355
		overallR2=0.1992	overallR2=0.0463	overallR2=0.0259
		F=3.48***	F=4.64***	F=0.89

주: 1) 소비자 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하고, 자녀가구는 자녀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부모가구는 부모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한 다음 자연로그 취하여 사용함

2) 분석모형에는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9~21차(2006~2018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3. 부모가구 자산규모별 추정 결과

부모가구를 자산 규모에 따라 저자산, 중자산, 고자산으로 구분하여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자산, 중자산 모형은 유의수준 1%에서, 고자산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적이전소득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다만, 고자산의 소비성향이 저자산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자산은 오히려 음(-)의 성향을 보였다.

세 집단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는 높아졌다. 미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의 소비는 부모 저자산은 14.45%, 중자산은 14.64%, 고자산은 0.44% 높았다. 미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소비는 각각 23.14%, 17.56%, 7.6% 높아, 모든 집단에서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모가구 자산규모별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구분	변수	부모 저자산	부모 중자산	부모 고자산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분가 자녀	사적이전소득 ¹⁾	0.0329 (0.0217)	-0.0012 (0.0113)	0.0176 (0.0153)
	소득 ¹⁾	0.0327 (0.0165)**	0.0690 (0.0124)***	0.0271 (0.0145)**
	자산 ¹⁾	-0.0037 (0.0119)	-0.0071 (0.0088)	0.0189 (0.0136)
	수도권(기준:비수도권)	0.1421 (0.1531)	0.1114 (0.1161)	-0.0097 (0.1179)
	입주형태(기준:자가)			
	전세	-0.0758 (0.0743)	0.0544 (0.0396)	-0.0226 (0.0478)
	월세	0.0382 (0.0816)	0.1356 (0.0543)**	0.0216 (0.0638)
	기타	-0.1557 (0.1017)	0.0427 (0.0674)	0.0427 (0.0777)
	연령	0.0236 (0.0783)	0.0008 (0.0539)	0.0453 (0.0594)
	고용형태(기준:미취업)			
부모 가구	임금근로자	0.1445 (0.0652)**	0.1464 (0.0494)***	0.0044 (0.0767)
	비임금근로자	0.2314 (0.1078)**	0.1756 (0.0737)**	0.0760 (0.1088)
	부모가구소득	0.0042 (0.0290)	0.0081 (0.0238)	0.0093 (0.0220)
	부모가구자산	-0.0349 (0.0105)***	0.0608 (0.0392)	0.0075 (0.0453)
		가구수=264	가구수=513	가구수=218
		표본수=524	표본수=1,019	표본수=468
		overallR2=0.1912	overallR2=0.0619	overallR2=0.0673
		F=3.84***	F=3.90***	F=1.43*

주: 1) 소비자 물가지수(2015년=100)로 실질화하고, 자녀가구는 자녀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부모가구는 부모가구의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한 다음 자연로그 취하여 사용함

2) 분석모형에는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9~21차(2006~2018년 조사) 학술대회용 자료

VI. 연구의 한계 및 결론

분석결과, 일상적인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집단에서 사적이전소득이 1%증가할 때, 소비가 0.00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자산정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소득규모에 따른 분석에서는 부모 저소득집단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이전소득이 1% 증가하였을 때, 소비를 0.0363% 늘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소득이 1%증가할 때, 소비는 0.045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입주형태가 자가보다는 월세일 때 7.8%, 미취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가 10.48%, 미취업자 보다는 비임금근로자가 17.05% 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구의 총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자산은 소비에 음의 영향(-0.017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분석표에서와 부모의 자산이 높은 집단이 소비가 높았던 분석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사적이전소득 유무에 따른 집단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사적이전소득 유무에 따른 집단 구분이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 조건, 자녀의 고용형태나 인구학적 특성 또는 가구 특성 등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었을 수 있다. 즉 일상적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만으로 분석을 한 것은 선택편의를 발생시켰을 수 있어, 이를 먼저 고려 한 모형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다른 한계는 소비와 사적이전소득간의 내생성의 문제일 것이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한 생활비가 담보되어야만 한다. 이는 부모의 경제상태에 상관없이,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청년가구주 본인이 부채를 지거나, 혹은 부모가 대신 제공해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소비가 필요한 청년 가구가 부모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고려한 모형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의 세대간 대물림이 소득의 대물림, 자산의 대물림을 넘어서, 일상적인 소비 수준에 까지 영향을 미쳐, 자녀의 일상적 삶을 상대적으로 윤택하게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을 통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에서 보여지듯이, 사적이전소득의 유무, 사적이전소득의 성격에 따라 집단간 소득격차와 소비격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집단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 낮고, 현재 자산도 적고, 부모의 총소득과 자산도 모두 가장 낮았다. 생활비도 가장 적었다. 반면, 거액의 일회성 사적이전 소득이 있는 집단은 소득도 높고, 부모의 경제수준도 가장 높았다. 이는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견인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더욱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사적이전소득이 없는 집단의 공적이전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김영민(2016),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3호 pp.77-98, 한국사회보장학회
- 배성중·이상호(2006), “소득분배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MONTHLY BULLETIN』, 2006년 4월호, pp.23-56, 한국은행
- 서영빈·송헌재(2015),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 연구』, 제8권 제3호(특권 제86호) pp.119-147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 IMF 이전과 이후 비교분석 -”,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2호, pp.1-14
-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의 경제적 계층별 분배”, 『사회보장연구』, 제14권 제1호, pp.157-187
- 안아림·마강래(2015), “소득세,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지역소득 재분배효과”, 『국토계획』, 제50권 제3호, pp.287-298
- 이지은(2018), “아버지 학력 및 경제적 형편에 따른 청년세대의 임금 차이”, 「KLI 패널 브리프」, 제14호(2018-04), 한국노동연구원
- 이철승·정준호(2018), “세대간 자산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동향과 전망』, 104호 가을·겨울호, pp.316-373
-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성원(2007), “소득격차의 확대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 제9권 제3호, pp.221-240
- 홍민기(2017),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Kim, J. W., and Choi, Y. J., 2011. "Does Family Still Matter?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in Emerging Welfare State Syste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4): 353-366